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39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2월 18일 (음력 11월 12일) 화요일

‘반복되는 대학 입시사고’...교육부는 대책 無

수시모집 합격자 명단을 잘못 발표한 조선대학교처럼 입시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교육부의 뚜렷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불합격 되어 할 학생이 합격으로 바뀌어 최종 입학까지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조선대의 경우 오류가 수정됐다”며 “대학 측에서 곧바로 사고 사실을 알렸고 사과를 한 만큼 후속 대책을 지켜보고 있

입시부정 등 고의성 발견될 경우 재정지원불가 처분

전산오류 등 단순사고...대학 측 사과문 게재가 전부

다”고 밝혔다.

1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조선대처럼 대학 합격자 발표 오류 사고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조선대는 지난 13일 오전 10시에 수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했지만 전산오류가 확인돼 4시간이 지난 오후 2시에 정정했다.



겨울 모형으로 꾸며진 전북은행 본점

17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위치한 전북은행 본점 1층에서 JB원더랜드 개장을 실시한 가운데 어린이들이 아름답게 꾸며놓은 조형물을 바라보며 겨울을 만끽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78명의 수험생이 합격에서 최종 불합격 처리됐으며 대학 측은 사과문을 게재하고 피해 수험생들에게 개별 연락을 했다.

지난해 12월 대구의 A 대학교는 수시모집 전형 최종합격자와 후보를 잘못 발표해 소동을 빚었다.

수시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AAT) 전형 합격자 27명과 후보 학생 27명을 뒤바꿔 발표했으며 재검토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해 정정한 뒤 사과했다.

대학 측은 “검정고시 응시생들의 성적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전산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2014년 2월에도 B 대학교는 전산상의 오류로 정시모집 지원자 228명의 당락을 뒤바꿔 발표했다.

정시 합격자 성적 처리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수능 영어 B형 가산점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대학 측은 재사정을 실시,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를 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는 사고가 수일이 지난 뒤 파악돼 피해 수험생들이 타 대학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였다면 큰 문제로 이어졌을 것이다”며 “이 같은 사고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재정지원불가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대의 경우처럼 대학 측의 명백한 실수이지만 오류를 곧바로 정정했다”며 “대학 측도 관련 사고를 보고했으며 수험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후속 대책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학 입시와 관련해 교육부 차원의 통합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대학별로 입시요강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답은꽃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김경수 경 남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백의중군 뜻을 밝혔다. 김지사는 12일 밤늦게 페이스북을 통해 ‘당은 단결과 단합으로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이어 ‘정부와 당이 많이 어렵다. 우리의 노력이 아직 국민들 피부에 와닿지 못하고 있다. 가는 길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대통령의 성공은 국민의 성공이다.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당의 힘을 하나로 모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지사는 ‘이재명 지사께서 평창원으로 들어가 백의중군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당의 단합을 위한 충성이라고 생각한다. 리머 ‘저 역시 당을 위해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중군하겠다. 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평창원으로 서성히 일하겠다’라고 했다.

서은홍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



사립유치원 집단행동에 화난 학부모들 ‘맞불시위’

광주참보육부모넷, 시교육청 감사 요구 1인시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서자 학부모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광주여성회 부설 광주참보육부모넷은 17일 오전부터 광주시교육청 정문 입구에

서 사립유치원 감사 거부 규탄과 광주시교육청의 엄중한 감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주참보육부모넷은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리를 알게 됐다”며 “일부 유치원이 감사 거부로 천막

농성까지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참보육부모넷은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에 국민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교비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감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기관으로서 교육자로서 의무를 다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광주참보육부모넷은 “학부모들은 여

전히 불안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갈등 없이 제대로 이뤄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4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13일 광주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하고 천막농성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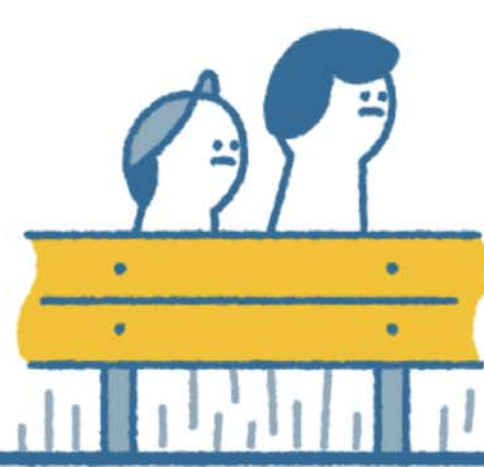
신봉우 기자

사람이 우선의 스마트 고속도로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나면



1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2 가드레일 밖 우선대피



3 사고신고 1588-2504

사람이 우선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